수업 중 스마트폰, 보관할까 활용할까?

똑똑 · 에디터 가온 · 발행 2026.09.28

집중과 접근성을 같은 논의 안에 놓는 교실 규칙.

개념 설명과 자체 제작한 적용 사례를 함께 읽습니다. 가상 사례·수치는 해당 위치에 표시했습니다.

쉬운 설명

같은 기기가 어떤 순간에는 알림으로 집중을 끊고, 다른 순간에는 글을 크게 읽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물건 하나의 좋고 나쁨보다 언제 무엇에 쓰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핵심

- 일상 사용과 교사가 설계한 학습 활동을 구분합니다.
- 집중 보호와 필요한 접근성 지원을 함께 고려합니다.
- 외국 사례의 규칙을 우리 학교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 · 2026-09-17 · 법의 원칙 안에서 운영 방법을 논의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보조기기, 교육 목적, 긴급 상황에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내 사용·소지의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의 대상은 법령을 없애거나 무제한 사용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닙니다. 법령과 학칙 안에서 보관·반환, 필요한 예외, 접근성 지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비교하는 가상 활동입니다. 실제 과제에서는 현행 조문과 학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논제 · 수업 중 보관 규칙을 논의합니다

가상의 학교가 수업 중 개인 스마트폰을 별도 보관하고 필요한 활동 때만 사용하게 하려 합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긴급 연락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논제가 아닙니다. 토론에서는 보관 장소, 책임, 예외, 이용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과 성적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도, 그 관계만으로 이 학교의 보관 정책 효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생 구성과 기존 수업 운영, 실제 준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찰된 문제와 선택한 해결책 사이에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보관 원칙 ·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치우면 집중을 지킬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주장

수업에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치우면 집중을 지킬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설명

알림과 수시 확인을 개인의 의지만으로 통제하기보다 공동 규칙으로 줄이는 접근입니다. 규칙이 분명하면 학생마다 다른 요구를 받는 혼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UNESCO 2023 GEM 보고서는 기술의 주의 분산 가능성과 교육 목적에 맞는 사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의 한계

해외 연구와 보고서의 경향이 모든 교실에서 같은 크기의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관 정책 전후의 수업 경험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예시

가상 수업에서 설명·토론 시간에는 보관하고, 자료 확인 10분 동안만 꺼내는 규칙을 함께 정합니다. 분실 책임과 예외 신청 방식도 안내합니다.

반론

보관 과정이 갈등이나 수업 시간 손실을 만들고, 보조 기능이 필요한 학생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성립 조건

교육 목적, 관리 책임, 필요한 예외, 비디지털 대안과 재검토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적별 사용 · 학습과 접근성에 필요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장

학습과 접근성에 필요한 기능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자료 확대·보조 읽기·즉시 자료 확인처럼 교육적 목적이 분명한 사용을 모두 차단하면 다른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용은 무제한 개인 사용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CAST의 UDL은 다양한 학습자가 정보에 접근하고 수행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 UNESCO 권고 역시 학습자의 필요를 중심에 놓습니다.

근거의 한계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원칙이 모든 수업에서 개인 휴대전화가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 공용 기기나 다른 지원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가상으로 화면 확대가 필요한 학생은 정해진 자료만 기기로 읽고, 다른 학생은 인쇄 자료를 선택합니다. 같은 목표에 다른 접근 방식을 허용합니다.

반론

목적별 사용을 구별하기 어렵다면 교사의 관리 부담과 학생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립 조건

필요한 기능과 사용 시간을 설명하고, 대체 수단과 예외를 낙인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검토 기준 · 규칙 시행 뒤 무엇을 볼까요?

목적	살펴볼 경험
집중	설명 중 중단·확인이 줄었는가?
접근성	필요한 보조 수단을 계속 쓸 수 있는가?
실행 가능성	보관·반환 때문에 수업이 지연되는가?
책임	분실·긴급 연락의 처리 경로를 알고 있는가?

정책 효과 수치가 아닌 학교 토론용 점검표입니다.

판단 · 좋은 규칙은 예외를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하는 규칙과 모든 학생이 같은 학습 목표에 접근하도록 돕는 규칙은 때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를 특혜로만 보지 않고 어떤 필요를 위한 것인지 설명하면 논의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단, 학생의 민감한 사정을 공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판단은 “보관하되 필요한 학습·접근성 사용과 긴급 연락 경로를 보장한다”처럼 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현재 학교 규정과 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보관 규칙의 목적 한 가지와 예외 한 가지를 함께 써보세요.

확인 설명

예: 설명 중 주의 분산을 줄이되 화면 확대 같은 접근성 지원은 지정된 방식으로 사용한다. 목적과 예외가 충돌하는 지점의 운영 방법도 적어보세요.

해외에서 금지했다면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정책을 도입했다는 사실과 효과를 입증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평가 설계와 비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를 두면 불공정하지 않나요?

동일한 규칙만이 형평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학습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인지 설명하고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합니다.

원문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275567: 2026-09-17 확인. 수업 중 스마트기기 제한 원칙과 허용 예외, 학칙에 정할 수 있는 운영 사항.

• UNESCO · 2023 GEM 교육 기술 보고서 — https://gem-report-2023.unesco.org/technology-in-education/: 접근성·교육의 질·주의 분산을 함께 다룹니다. 관찰과 인과 해석을 구분해 읽습니다.

• UNESCO · 2023 GEM 권고 — https://gem-report-2023.unesco.org/recommendations/: 적합성·형평성·근거·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CAST · UDL Guidelines 3.0 — https://udlguidelines.cast.org/: 참여, 표상, 행동·표현의 설계 관점. 효과를 보장하는 제품 인증이 아닙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school-phone